

# 중형 못지않는 강한 힘...100km 넘는 속도 편안한 주행

‘준중형 끝판왕’...기아 더 뉴 스포티지 시승기

### 빌트인캠 등 최첨단 기능 탑재 인기 폭발...하이브리드 연비 탁월 단단하고 멋스러워진 디자인...뒷자리 넉넉해 패밀리카 손색없어

국내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판매량 1위인 스포티지가 3년 만에 페이스 리프트 모델을 출시했다. 국내 준중형 SUV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스포티지는 높은 판매량이 증명하듯 편의성과 디자인, 기능 등 다방면에서 국내 시장에서 적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아는 지난 2021년 7월 출시된 5세대 스포티지의 상품성 개선모델 ‘더 뉴 스포티지’를 최근 출시하고 판매에 돌입했다. 지난 18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도움을 받아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시승했다.

이날 준비된 차량은 1.6 가솔린 터보 모델과 1.6 하이브리드 모델, 기자는 이 중 파노라마 선루프와, 19인치 전면 가공 휠, 모니터링, 드라이브와이즈, 빌트인캠 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했다. 차량 가격은 4493만원이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등재를 완료하면 약 1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원 상 하이브리드 모델의 최고 출력은 1.6 l 가솔린 엔진이 가진 180마력에, 구동모터 50마력을 더한 최대 230마력의 스펙을 갖췄다.

시스템 최대 토크는 27kgf/m(엔진 최대 토크 35.7kgf/m)의 강한 힘을 가졌다. 가솔린 1.6 터보 모델에는 8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했다. 이날 더 뉴 스포티지를 직접 타고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출발해 장성 백양사를 돌아오는 왕복 약 80km를 주행했다.

기아를 포함한 현대차그룹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행성능은 이미 정평이 난 만큼, 더 뉴 스포티지의

‘달리기’ 능력은 탁월함을 보여줬다.

SUV인 탓에 비교적 높은 차고에도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에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했고, 준중형임에도 마치 중형 차량을 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전기모터 충전을 위해 발생하는 회생제동도 이질감이 없었고, 한층 더 조용한 내연기관 차량을 운전하는 듯한 기분을 받았다.

경유자인 장성 백양사에 멈춰 차량 내외부를 둘러봤다. 외부 디자인은 전 모델과 비교해 더 웅장해지고 단단해진 듯한 느낌을 줬다. 최근 기아에서 출시된 내연기관 기반 차량들은 기아의 전면 헤드라이트 밑으로 ‘송곳니’를 형상화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적용하고 있는데, 스포티지 역시 이 디자인을 적용했다.

호불호가 갈렸던 전 모델과 달리 패밀리룩을 강화하면서 디자인 요소에서 통일성을 줌과 동시에 멋스러움이 강조됐다. 헤드라이트도 수평형 패턴이 적용된 대형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해 강렬한 인상을 줬고, 넓은 인테이크 그릴과 하단 범퍼의 수직적인 디자인 요소가 조화를 이뤘다.

후면부 역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적용한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와 와이드한 범퍼 형상으로 전면부와 통일감을 줬다.

내부는 사실상 전 모델에서 이미 현시점 준중형 라인업에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정도의 최첨단 장비와 편의기능이 장착됐었던 만큼 큰 변화는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송풍구 디자인을 수평적으로 변경해 공간감을 늘렸고, 더블 D컷 형태의 스티어링 휠을 적용



기아가 3년 만에 스포티지 페이스 리프트 모델을 출시했다. 더 뉴 스포티지는 기아의 패밀리룩을 적용해 더욱 웅장하고 남성미를 강조했으며 다양한 첨단 편의 기능을 추가했다.

해 상품성 개선모델을 출시하면서 고민한 흔적이 엿보였다.

시승차량에 적용된 19인치 전용휠은 대형차량인 EV9 휠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고급감과 중후함을 더해줬다.

더 뉴 스포티지는 또 정전식 센서를 활용한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HoD)와 위험 상황을 진동으로 알려주는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을 기본 적용했다.

국내에 출시된 기아 모델 중 최초로 운전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주는 운전자 전방 주의 경고 카메라

라도 탑재됐으며, 운전자의 시선 이동을 최소화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HUD)를 신규 적용한 게 눈에 띄었다.

뒷자리도 넉넉해 패밀리카로도 손색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기아 관계자는 “스포츠지는 기아를 대표하는 준중형 SUV로 30여년간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며 “이번 더 뉴 스포티지는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상품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신규 편의사양을 추가함으로써 더욱 완성도 높은 모델로 거듭났다”고 말했다.

더 뉴 스포티지의 판매 가격은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2836만원부터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3315만원부터 시작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혜택 기준)

기아 관계자는 “스포츠지는 기아를 대표하는 준중형 SUV로 30여년간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며 “이번 더 뉴 스포티지는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상품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신규 편의사양을 추가함으로써 더욱 완성도 높은 모델로 거듭났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기아차 콤팩트 SUV ‘시로스’ 인도서 세계 최초 공개

### OTA 등 최첨단 신사양 탑재 아태·중남미·중동 시장 공략



기아는 23일 “길이 4m 이하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로스’ (사진)를 인도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로스는 그리스 키클라데스 제도의 섬 이름을 따온 것으로, 전통과 서구 문화가 조화된 시로스 섬의 이미지를 투영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차량은 내년 인도를 시작으로 판매를 개시한다. 기아는 현지 특화된 도심형 SUV 시로스를 통해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아프리카·중동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방침이다.

시로스는 가솔린과 디젤 엔진 등 2가지 라인업으로 운영된다.

1.0 가솔린 터보는 최고 출력 120마력, 최대 토크 172Nm이며 1.5 디젤은 최고 출력 116마력, 최대 토크 250Nm의 동력성을 갖췄다.

시로스의 외관은 기아 디자인 철학인 ‘오퍼티브 유나이티드’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에 입각해 기능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전면에는 기아 디자인의 상징인 스타맵 시그니처 LED 라이팅과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가 적용됐고, 측면에는 기아 로고가 들어간 퍼플램프와 유선형 도어 핸들이 탑재됐다.

시로스는 전장 3995mm, 전폭 1805mm, 전고 1625mm의 제원을 갖췄고, 실내에는 2550mm의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뒷좌석에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60 대 40 분할 시트를 갖췄다. 그 결과 체급 대비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고 기아는 전했다.

실내에는 12.3인치 HD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5인치 공조,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어진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하단 카본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등이 적용됐다.

운전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다.

기아는 시로스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기능을 적용해 서비스센터에 방문하거나 별도의 장비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했다.

또 기아 커넥트 2.0을 탑재해 긴급 지원, 실시간 차량 진단, 도난 차량 추적 기능 등을 제공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금호타이어 ESG ‘골드 메달’ 획득

### 에코바디스 평가

금호타이어가 23일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에서 골드(Gold)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에코바디스는 프랑스에서 설립돼 전 세계 180개국 13만여개 이상의 기업이 활용하는 ESG 평가 플랫폼으로 환경과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성장 등 4개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현황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플래티넘(상위 1%), 골드(상위 5%), 실버(상위 15%), 브론즈(상위 35%) 등급으로 메달을 부여한다.

금호타이어는 ESG 평가 결과 상위 5%에 해당하는 골드 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ISO 37301(규범준수경영시스템) 및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TISAX(독일 자동차산업협회 주관 정보보안인증) 획득 ▲인권영향평가 프로세스 고도화 ▲공급망 지속가능성 정책 제정 ▲협력사 ESG 역량



강화 지원 노력 등을 인정받았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금호타이어는 ESG 경영의 점진적인 내재화를 통해 대외 ESG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전사적으로 지속가능경영 철학을 실천하며, 지속가능경영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최근 한국표준협회 주관의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타이어부문 지속가능성지수 1위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현대차 플래그십 대형 SUV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사전계약 개시

### 출시후 6년만에 완전 변경 모델



현대차가 플래그십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사진)의 사전계약을 시작했다. 디 올 뉴 팰리세이드는 2018년 11월 첫 출시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완전 변경 모델이다. 2.5 터보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된다. 가솔린은 다음 달 중순부터 고객 인도를 하고, 하이브리드는 인증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출고할 계획이다.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별로 7·9인승 구성과 익스클루시브·프레스티지·캘리그래피 3종의 트림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디 올 뉴 팰리세이드는 이전 모델보다 전장이 65mm 늘어난 5060mm(캘리그래피 트림은 5065mm), 휠베이스(축간거리)는 70mm 길어진 2970mm로, 넉넉한 실내 공간을 갖췄다.

9인승 모델은 1열 가운데 좌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접이식 멀티콘솔을 탑재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리어 오버행(차량 끝에서 바퀴 중심까지의 거리)

은 이전 모델보다 35mm 늘었고, 3열 시트는 전방으로 70mm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4개의 골프가방과 보스턴백을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최대 615 l (미국 기준)의 수납공간을 갖췄다.

디 올 뉴 팰리세이드에는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현대차 최초로 적용됐다.

이를 통해 모터 합산 출력 334마력의 성능을 내

고, 1회 주유 시 1천km가 넘는 주행거리를 확보할 것으로 현대차는 기대했다. 연비는 정부 신고 절차 마무리한 뒤 공개될 예정이다.

또 1.65kWh(킬로와트시) 300V(볼트)급 고전압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실내 V2L(차량 외부 전기 공급 기술), 스테이 모드(무시동 상태에서 공조 기능 등 이용) 등의 전기가 특화 편의 기술을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처음 적용했다.

2.5터보 가솔린 모델은 최고 출력 281마력과 최대 토크 43.0kgf·m 복합연비 9.7km/l 을 갖췄다.

신형 팰리세이드에는 현대차 SUV 최초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ECS)이 적용됐다. 각종 센서와 내비게이션 지도 정보를 활용해 노면 정보 및 주행 상황을 판단하고, 흔들림을 최소화해 쾌적한 승차감을 보장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디 올 뉴 팰리세이드는 한층 고급스러워진 디자인과 안락한 인테리어까지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현대차 SUV 라인업의 프리미엄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현대차그룹 연말 이웃사랑 성금 350억원 전달

현대차그룹이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 성금 35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사진> 현대차그룹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현대차그룹 장재훈 사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25나눔캠페인’ 성금 전달식을 열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희망나눔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현대차그룹은 2003년부터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해왔다. 올해까지 22년간 기탁한 성금 누적 총액은 4290억원이다.

장재훈 사장은 “나눔을 통해 이웃을 돕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기업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에 올해도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올바른 움직임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